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자아존중감 및 그릿

박일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Self-esteem and grit for each type of parenting attitude recognized by adolescents

Il Tae Par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os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그릿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2018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4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비계층적 방법(k-mean cluste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소극적 애정 수용형', '적극적 애정 수용형', '독재적 비일관형', '애정부족 거부형'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양육태도의 4개 군집별로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그릿 모두 '적극적 애정 수용형'인 군집 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군집별로 차별화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양육, 자아존중감, 성격, 군집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grit in adolescents depending on the type of parenting attitude. Among the 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of 2,438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2018 year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k-mean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the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passive affection acceptance', 'active affection acceptance', 'authoritarian inconsistency', and 'lack of affection rejection'.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the degree of grit among the four clusters of parenting attitudes. Both self-esteem and grit were highest in the "active affection acceptance" group 2. In the future, differentiated parental education is needed for each cluster to improve self-esteem and grit of adolescents, and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Adolescent, Parenting, Self Esteem, Personality, Cluster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 중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갈등, 혼란, 정서적 긴장 등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1]. 또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진로의 결정 등 달성해야 하는 수많은 발달 과업들이 동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2].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행, 부적응적 행동, 자살, 정서적 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갈등 관계 등이 언급되어 왔다[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겪는 스트레스를 청소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기 비행이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4].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증을 적게 경험하고[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6].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다[7, 8]. Ko [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Hwang & Kim [10]의 연구에서도 애정, 합리적 설명 등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의 학습 수준이 높고, 정서적 문제는 낮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 향상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심리적 속성으로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그릿(Grit) 역시, 주목받고 있다[11].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인내와 열정'을 의미하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11]. 그릿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이며,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12], 주의집중 문제가 적고, 공격성이 적다[13]. 그릿은 청소년의 인지, 행동, 정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며, 청소년이 스스로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대처하게 하고, 시험 불안과 같은 학업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14, 15].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를 조사한 Um & Yoon [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그릿은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와 그릿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학령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 & Choi [17]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그릿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그릿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10, 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분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양육태도 개별요소들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10].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 시기별로 가변적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0]. Hwang [10]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부모의 양육유형을 '애정만족/과잉기대형'으로 지각하였고, 고등학생들은 '과잉기대/과잉간섭형'으로 지각하였는데,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입시 등 환경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또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의 경우, 그릿과 같은 내적 요인 향상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다. 중학교 시기의 높은 수준의 그릿 형성은 고등학교 진학과 학업성취, 성인의 성취 및 성공 등과 연결되므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5]. 발달 단계 중 중학생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부모에게 의존적인 면모도 보이며 자아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2].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목표를 향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2].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단순히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 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밝히므로써 청소년 초기의 성장

발달 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양육태도 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릿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그릿 정도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한다.
- 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 2.2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2017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고, 매년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43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 1)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한

다[18]. 본 연구의 양육태도는 Kim & Lee [18]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KA)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세부 문항은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의 6개 영역, 각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영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따스함 .882, 거부 .796, 자율성 지지 .863, 강요 .757, 구조제공 .746, 비일관성 .793이었으며, 총 2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27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9]의 자존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0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5이었다.

#### 3) 그릿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며[11], Kim & Hwang [20]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노력가이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총 8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85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ver.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로 분석되었다. 둘째, 양육태도 유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은 적합한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비계층적 방법(K-mean cluster analysis)이 시행되었다. 양육태도 유형별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 $\chi^2$ -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사후분석은 Scheffe-tes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그릿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아가 1318명(54.1%), 여아가 1120명(43.2%)였다. 부모님과 대화시간은 평일의 경우 30분~1시간 미만이 781명(32.0%)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1~2시간 미만이 717명(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93점( $\pm 0.45$ )이었으며, 그릿의 평균은 2.63점( $\pm 0.40$ )이었다.

#### 3.2 양육태도 유형 및 특징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따스함이 평균 3.26점( $\pm 0.55$ ), 자율성 지지 평균 3.21점( $\pm 0.57$ ), 구조제공 평균 2.96점( $\pm 0.52$ ), 비일관성 평균 2.64점( $\pm 0.49$ ), 강요 평균 2.15점( $\pm 0.61$ ), 거부 평균 1.83점( $\pm 0.62$ )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육태도 세부영역을 계층적 방법으로 군집분석하였고,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값들을 기준으로 4개의 군집 수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를 다시 비계층적 방법(K-mean cluster analysis)을 통해 최종 결정된 군집 수 4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이 868명

(35.6%), 군집 2가 769명(31.5%), 군집 3이 378명(15.5%), 군집 4가 423명(17.4%)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각 군집별 특성을 양육태도 세부 영역인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순으로 살펴보면, 군집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군집 내에서는 따스함과 자율성 지지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 영역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고, 4개 군집 중 2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군집 1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낮고, 따스함이 그룹 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룹 간에는 세번째인 특징을 반영하여 '소극적 애정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따스함과 더불어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영역에서 4개 군집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거부, 강요, 비일관성 영역에서는 4개 군집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군집 2는 따스함, 자율성 지지와 같은 양육태도가 그룹 중 가장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 애정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따스함 영역에서는 군집 2 다음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강요와 비일관성 영역에서 4개 군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군집 3은 강요와 비일관성 영역의 점수가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독재적 비일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영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으며, 거부 영역에서 4개 군집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Grit

(N=2438)

Variables	Category	n(%) or M $\pm$ SD
Gender	male	1318(54.1%)
	female	1120(43.2%)
Time to talk with parents (Weekday)	None	6(0.2%)
	Less than 30 min	450(18.5%)
	30 min~less than 1 hour	781(32.0%)
	1 hour~less than 2 hour	644(26.4%)
	2 hour~less than 3 hour	351(14.4%)
	3 hour~less than 4 hour	101(4.1%)
	More than 4 hours	105(4.3%)
Time to talk with parents (Weekend)	None	19(0.8%)
	Less than 30 min	217(8.9%)
	30 min~less than 1 hour	474(19.4%)
	1 hour~less than 2 hour	717(29.4%)
	2 hour~less than 3 hour	500(20.5%)
	3 hour~less than 4 hour	220(9.0%)
More than 4 hours	291(11.9%)	
Self-esteem		2.93 $\pm$ 0.45
Grit		2.63 $\pm$ 0.40

강요, 비일관성 영역에서도 군집 3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군집 4는 파스함 등의 점수가 낮고, 거부 점수가 군집 중 가장 높은 특성을 반영하여 ‘애정부족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 3.3 양육태도 유형별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 특성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군집 2(적극

적 애정 수용형)에서는 남아가 387명(50.3%), 여아가 382명(49.7%)로 유사하였고, 나머지 군집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다.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군집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평일 부모님과과의 대화시간은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가 ‘1~2시간 미만’에서 228명(29.6%)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군집에서는 30분~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부모님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군집 2(적극적

Table 2. Parenting attitude type

(N=2438)

Parenting Attitude	Passive affection acceptance <sup>a</sup> (n=868)	Active affection acceptance <sup>b</sup> (n=769)	Authoritarian inconsistency <sup>c</sup> (n=378)	Lack of affection rejection <sup>d</sup> (n=423)	Total	F (p)	Scheffe
	M±SD	M±SD	M±SD	M±SD			
Warmth	3.16±0.33	3.82±0.29	3.29±0.40	2.56±0.37	3.26±0.55	1364.45 (<.001)	b>c>a>d
Rejection	1.76±0.40	1.32±0.36	2.34±0.59	2.47±0.48	1.83±0.62	831.64 (<.001)	d>c>a>b
Autonomy support	3.08±0.30	3.78±0.31	3.17±0.38	2.46±0.41	3.21±0.57	1492.86 (<.001)	b>c>a>d
Force	2.08±0.38	1.66±0.51	2.79±0.41	2.64±0.46	2.15±0.61	758.95 (<.001)	c>d>a>b
Structure provision	2.86±0.35	3.34±0.49	3.06±0.37	2.41±0.41	2.96±0.52	491.98 (<.001)	b>c>a>d
Inconsistency	2.01±0.40	1.51±0.44	2.66±0.44	2.62±0.49	2.64±0.49	879.94 (<.001)	c,d>a>b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by parenting attitude type

(N=2438)

Variables	Category	Passive affection acceptance <sup>a</sup> (n=868)	Active affection acceptance <sup>b</sup> (n=769)	Authoritarian inconsistency <sup>c</sup> (n=378)	Lack of affection rejection <sup>d</sup> (n=423)	χ <sup>2</sup> or F (p)	Scheffe
		n(%) or M±SD	n(%) or M±SD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491(56.6)	387(50.3)	217(57.4)	223(52.4)	0.036	
	female	377(43.4)	382(49.7)	161(42.6)	200(47.3)		
Time to talk with parents (Weekday)	None	2 (0.2)	0 (0.0)	0 (0.0)	4 (0.9)	<.001	
	Less than 30 min	158(18.2)	85(11.1)	89(23.5)	118(27.9)		
	30 min~less than 1 hour	309(35.6)	193(25.1)	135(35.7)	144(34.0)		
	1 hour~less than 2 hour	239(27.5)	228(29.6)	90(23.8)	87(20.6)		
	2 hour~less than 3 hour	102(11.8)	150(19.5)	43(11.4)	56(13.2)		
	3 hour~less than 4 hour	35(4.0)	44(5.7)	12(3.2)	10(2.4)		
More than 4 hours	23(2.6)	69(9.0)	9 (2.4)	4(0.9)			
Time to talk with parents (Weekend)	None	6 (0.7)	0 (0.0)	5 (1.3)	8 (1.9)	<.001	
	Less than 30 min	79(9.1)	35 (4.6)	39(10.3)	64(15.1)		
	30 min~less than 1 hour	174(20.0)	103 (13.4)	78(20.6)	119(28.1)		
	1 hour~less than 2 hour	281(32.4)	188(24.4)	121(32.0)	127(30.0)		
	2 hour~less than 3 hour	181(20.9)	171(22.2)	74(19.6)	74(17.5)		
	3 hour~less than 4 hour	66(7.6)	103(13.4)	33(8.7)	18(4.3)		
More than 4 hours	81(9.3)	169(22.0)	28(7.4)	13(3.1)			
Self-esteem		2.88±0.34	3.24±0.45	2.83±0.37	2.56±0.34	305.55 (<.001)	b>a, c>d
Grit		2.60±0.34	2.82±0.47	2.53±0.34	2.43±0.31	110.06 (<.001)	b>a>c>d

애정 수용형)와 군집 3(독재적 비밀관형)은 없었으며, 군집 1(소극적 애정 수용형) 2명(0.2%), 군집 4(애정부족 거부형) 4명(0.9%)으로 나타났다. 주말 부모님과 대화 시간은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에서 1~2시간 188명(24.4%), 2~3시간이 171명(22.2%)으로 많았으며, 다른 군집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3~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가 각각 103명(13.4%), 169명(22.0%)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화를 전혀 안하는 경우는 군집 4(애정부족 거부형)가 8명(1.9%)으로 가장 많았고, 군집 1(소극적 애정 수용형)과 군집 3(독재적 비밀관형)이 각각 6명(0.7%), 5명(1.3%),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에서는 없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것도 군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가 평균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집 1(소극적 애정 수용형)은 2.88점, 군집 3(독재적 비밀관형)은 2.83점, 군집 4(애정부족 거부형)가 2.56점 순이었다. 그것의 군집 유형별 평균은 군집 2(적극적 애정 수용형)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군집 1(소극적 애정 수용형)은 2.60점, 군집 3(독재적 비밀관형)은 2.53점, 군집 4(애정부족 거부형)는 2.43점이었다.

####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그것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소극적 애정 수용형', '적극적 애정 수용형', '독재적 비밀관형', '애정부족 거부형'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군집 1은 따스함과 구조제공 등은 조금 부족하지만,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적게 나타내는 '소극적 애정 수용형'(35.6%)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가 속해 있었다. Kim [21]은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모두 낮은 유형에 속하는 부모들은 애정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서툴다고 하였는데, 부모로서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22]. 양육태도는 양육에 대한 신념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23]. 과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가정문화에서 자란 부모세대들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

을 배울 롤 모델이 없었을 것이다. 이 유형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서를 자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군집 2는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영역에서 4개 군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영역에서는 4개 군집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유형으로 '적극적 애정 수용형'(31.5%)이다.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긍정적·정서적 표현을 자주하고[21],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우울과 사회불안 등 정서 문제를 적게 나타낸다[24, 25]. 이와 같은 유형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라고 볼 수 있다.

군집 3은 따스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강요적 양육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비밀관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독재적 비밀관형'(15.5%)이었다.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 및 과잉 간섭적 양육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만든다[26]. 자녀는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행동의 한계를 적절하고 일관되게 설정해 주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27]. 이 유형의 부모는 애정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통제를 설정하여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

군집 4는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장 적게 나타내고, 거부, 강요하거나 비밀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특히, 거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애정부족 거부형'(17.4%)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의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경계선 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공격성, 회피성 성격 등을 초래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28]. 또한, 강요적 양육태도 역시 아동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만약, 이러한 양육태도의 영향이 아동 취학 전부터 시작된다면, 문제행동들은 아동이 나이들어감에 따라 더 크게 발현된다[29].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청소년기 이전 부터 조기 개입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사료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단계와 환경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특징을 가진다[10].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덜 통제적이고, 자율

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되어 진다[30].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애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태도의 세부적 요소들을 조절해 나가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양육태도 유형별 특징이 다르므로,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부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부모와의 대화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군집에서 평일 보다 주말에서 평균 대화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일, 주말 모두 '적극적 애정 수용형'인 군집 2가 다른 군집 보다 2시간 이상 부모님과 대화하는 비율이 높아 대화시간이 길었고, '애정부족 거부형'인 군집 4가 30분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대화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Mun & Lee [31]의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따스함, 구조제공,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길었으며, 반대로 거부적, 강요, 비밀관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대화시간이 감소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32], '적극적 애정 수용형'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 시에 부모 주도의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시행하므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양적으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과 그릿과의 관계에서도 양육태도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그릿 모두 '적극적 애정 수용형'인 군집 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극적 애정 수용형'(군집 1), '독재적 비밀관형'(군집 3), '애정부족 거부형'(군집 4) 순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애정 수용형(군집 1)과 '독재적 비밀관형'(군집 3)을 비교하여 보면, '소극적 애정 수용형'(군집 1)이 '독재적 비밀관형'(군집 3) 보다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 점수는 낮지만, 거부, 강요, 비밀관성 영역의 점수 역시 낮게 나타났다. 기존 문헌들에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 뿐 만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0, 33].

Zakeria & Karimpourb [30]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Cha 등 [3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감독, 애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리적 설명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부모와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도 위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Ki [35] 연구에서는 '따스함-자율성 지지형' 부모 유형에서 자녀의 학습열의가 가장 높았고, '강요-비밀관형' 부모에서 학습열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Choi & Han [36]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시적 태도나 엄격함 같은 양육태도는 청소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소시키므로 그릿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와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비판적 사고,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시기이다[2].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부모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을 위해서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덜 통제적이며 일관된 양육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소극적 애정 수용형', '적극적 애정 수용형', '독재적 비밀관형', '애정부족 거부형'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자녀와의 대화시간,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그릿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바람직한 양육유형인 '적극적 애정 수용형'의 부모에서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부정적 속성의 양육태도 점수가 낮은 부모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가장 많은 부모들이 속해 있는 유형은 '소극적 애정 수용형' 이므로,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와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부정적 양육태도

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이 인식한 것으로 측정하여 실제 부모나 제 3자가 측정한 양육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그릿 정도의 차이만을 비교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대해 반복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양육태도 유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하여 각 양육태도 유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차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크게 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에 차이가 있었고, ‘적극적 애정 수용형’ 부모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낮은 양육태도 유형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높았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양육태도 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차이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군집별로 차별화된 부모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R. J. DiClemente, W. B. Hansen & L. E. Ponton. (1996). Adolescents at risk. In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Boston : Springer, 1-4.*
- [2] L. S. Neinstein, D. K. Katzman, T. Callahan, C. M. Gordon, A. Joffe & V. Rickert. (2016). Neinstein's Adolescent and Young Adult Health Care. 6th Revised edition, Pennsylvania,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
- [3] Y. H. Kim & A. M. Cho & S. H. Lee & H. J. Byeon. (201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Problem Behavior and Policy Task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331p*
- [4] T. R. Kim. & G. H. Kim. (2017). The Effect of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on Delinquenc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7(12), 628-643.*
- [5] M. Wei, T. Y. Ku, D. W. Russell, B. Mallinckrodt & K. Y. H. Liao.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
- [6] M. S. Jeong.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25, 140-170.*
- [7] M. H., Kernis, A. C., Brown & G. H. Brody (2000). Fragile self-esteem in children and its associations with perceived pattern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225-252.*
- [8] D. H. Kim. (2020).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485-495.*
- [9] M. S. Ko. (2010)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3), 195-202.*
- [10] H. Y. Hwang & N. Y. Kim (2018) Understanding Parenting Style Profiles: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3), 679-702.*
- [1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2] C. S. Jun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ag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 675-684.*
- [13] Y. J. Jang & S. Y. Lee & Y. N. Jang & S. H. Hong. (2021). Relationships between Grit,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on : Testing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e. *The Anam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27(1), 377-405.*
- [14] Y. U. Shin & M. J. Koo & D. E. Park. (201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grit 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21-36.*
- [15] H. S. Choi & S. Y. Han. (2021).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 Grit,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Society of Parent Education, 103-125.*
- [16] T. S. Um & M. S. Yoon.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 among Parenting Attitude,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 1151-1176.
- [17] S. H. Lee & J. E. Choi. (2019).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GRIT, Growth Mindse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3), 155-168.
- [18] T. M. Kim & E. J.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 [19]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 H. M. Kim. & M. H. Hwang.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35(3), p63-74.
- [21] M. J. Kim. (2016). The Analysis of Type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s Clusters : Focusing on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2(2), 239-262.
- [22] Y. H. Lee. (2008).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Measuring: Mother and Father Shared Caregiv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2, 189-210.
- [23] X. Chen, R. Fu, S. Zhao. (2014). *Culture and socialization*. In: Grusec JE, Hastings PD,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451-472..
- [24] M. J. Chung & J. G. Yuh.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Examining Gender-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9), 103-111. <http://dx.doi.org/10.6115/khea.2010.48.9.103>.
- [25] M. S. Ko. (2015).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on Emotion Problem.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783-793.
- [26] R. Y. Jeon & H. H. Kim. (2016). The effects of inconsistent parenting and intrusive parenting on early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57-67.
- [27] C. Y. Cho & Y. H. Kwon. (2014). The Role of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Verbal Ability on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Rejective Parenting and Child's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4(1), 51-72.
- [28] H. K. Kim & K. H. Suh. (2013). The Role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 of Parental Rejection or Control and Avoidant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107-127.
- [29] J. W. Han & H. N. Lee. (2018).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s on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1), 109. <https://doi.org/10.4040/jkan.2018.48.1.109>.
- [30] H. Zakeria, M. Karimpourb. (2011). Parenting Styles and Self-esteem.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9, 758-761.
- [31] Y. E. Mun. & J. Y. Lee. (2021).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nversation Hours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17(1), 85-104. <https://doi:10.14698/jkcce.2021.17.01.085> .
- [32] H. Y. Kim & G. S. Kim & K. D. Shin & S. G. Song. (2015). Child happiness, It's up to parental education. *Issue & Analysis*, (174), 1-25.
- [33] M. R. Lee. & H. S. Jeon.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 (warmth,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group Analysis by School Leve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79-805.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4.779>
- [34] H. S. Cha & H. S. Lee, J. I.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of Youth.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41-55.
- [35] P. D. Ki. (2021). Parenting Attitudes Profil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the Adolescents Associated with the Profiles.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9(2), 215-231.
- [36] H. S. Choi & S. Y. Han. (2021).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 Grit,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3(1), 103-125. DOI : 10.36431/JPE.13.1.6

박 일 태 (Park, Il Tae)

✉



- 2001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2021년 2월 : 고려대

- 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의 안전, 건강발달, 간호
- E-Mail : pit97@naver.com